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9월 1일 (제101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 우리나라의 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나쁜 것만은 사실이다.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전쟁이기에 더욱 그렇다. 영적전쟁이 뭔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롬8:31). 어떤 조치도, 어떤 제재도 한순간일 뿐,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사울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한 첫 마디가 이것이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삼상17:32).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33장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3-34)고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하라.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과정을 온전히 대변한다. 두고 보라.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19세기말 이후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열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여기에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형국이다.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변 열강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기꺼이 반겨줄 나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각자 진영으로의 통일이야 기대하겠지만, 워낙 초강대국들이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낭만적 기대는 어렵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명심하고 더욱 깨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 누구라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한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안에서 문

치인의 나라도 아니요, 일개 기업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요, 우리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주변 열강들이 우리를 도울지언정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스바 구국성회를 외쳤던 사무엘 선지자의 심정으로 호소하니 오는 10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대비 40일 작정기도회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 하는 마지막 때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신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잠자



40일간 작정기도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8월 22일(목) - 9월 30일(월)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

지향하는 바는 피한방을 흘리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북한을 상대해야 하고 미국 등 주변 열강의 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말 한 마디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 하나로 판이 깨질 수 있는 살얼음 형국이 우리가 가고 있는 통일의 험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국가비전에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대외역량도 힘을 갖고, 때로는 협력하고 설득하며 이 복잡한 갈등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작금의 사태를 진단하시며 단적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결국 영적

을 열어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고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적 위기에 운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남갈등이나 일삼아서야 어찌 외부의 적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이 국가적 위기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외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라도 누구를 탓하고 돌을 던지기에 앞서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찌 여야가 있을 수 있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일개 정

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함께 기도하려 한다. 이를 위한 40일 작정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 및 땅끝예수전도단의 모든 회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대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자!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6:16~22)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 한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역시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3:11). 바로가 온갖 수를 동원해서 막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거절했다 해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는 차질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다만 그 형들을 쓰임 받게 한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성경에는 ‘미리 정하신’이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행2:23, 고전2:7). 또한 ‘예정’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행3:20, 엡1:5, 엡1:11, 엡1:9), 경륜(經綸)이란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골1:25, 엡3:9). 이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 혹여 가룟 유다가 회심해서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눅22:22)라고 말씀하셨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임함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모사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계책을 부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꺾으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14:27).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셀 수조차도 없는 많은 외침과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것도 모자라서 동족끼리의 전쟁까지 치렀지만 우리나라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디 살아남기만 했습니까?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일본의 견제를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대국이 되게 하시려고 살리시고, 부유케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잠자던 교회들을 깨워 제2의 도약을 꿈꾸라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번 사태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는 이미 결말을 아는 축구경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계속 우리 골문을 위협한다고 해도, 심지어 지고 있더라도 결말은 이기게 되어 있는 축구경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굿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7:13).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롬8:31)?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

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겔36:37).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계획하고, 40일 작정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시에 마귀도 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전쟁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적싸움입니다(엡6:12).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태클을 걸려고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본래 인간자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국가 간, 목사와 장로 간, 직원 간, 가족 간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과 갈라놓듯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 다투면 다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스스로’, 곧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기업이, 가정, 교회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여야가 싸움질만 하면 국가는 후퇴해서 결국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꼴이 되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됩니다. 공멸이 아닌 공생을 하려면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

삭을 보세요.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으며 싸움을 걸 때마다 그들에게 양보하며 싸움을 피해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인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뜻입니다(창26). 통 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친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창13:8). 피붙이끼리 싸우지 말자,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창13:9)하며 싸움을 피합니다. 왜 싸우는지 압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투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25:28).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오직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싸우지 마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어려울수록 뽀뽀 뭉쳐야지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지요. 그래야 이 나라가 앞으로 꽃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사람이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계3:7).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잠16:9),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우선입니다(잠19:21).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 것을 깨닫고, 그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사랑하고, 통 큰 마음으로 이해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웅달샘 ::

내재가치

워렌 버핏은 “내재가치란 그 잔존기간 동안에 그 사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정의는 간단하나 계산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내재가치는 정의상 단 한 개의 숫자가 아니라 예측치에 가깝다.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바뀌거나 이자율이 바뀌면 내재가치도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도 또박또박 받는 연금이 아니며, 예측할 수 없는 근본 변수들이 현금흐름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에 사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들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거의 모든 투자자는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가치는 한 개의 숫자라기보다 ‘어떤 범위 내’라고 여기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멍거와 버핏은 “모든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재간은 없다. 우리는 많은 사업을 ‘너무 힘든 것’으로 분류하고 쉬운 것들만 몇 개 골라낸다.”고 말합니다.

멍거는 한 사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머리로 암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멍거와 버핏은 공이 날아올 때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계산방법이 간단할수록 사업 평가를 간단히 할 수 있고, 또 믿을만한 값이 나옵니다. 계산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더라도 가치투자자는 가치평가 프로세스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치투자자는 계산

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뒤 투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재가치는 이처럼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경험 많은 투자자라면 내재가치는 머리로 암산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버핏은 “내재가치는 딱 한 개의 숫자로 집어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불분명하지만 내재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투자와 사업의 상대적 매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재가치는 제대로 실사를 할 줄 알고 현금 실태가 충분한 사업가가 그 사업을 온전히 장악하고 싶을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이때 부르는 값이 정확한 가격이다. 현재 시장가격이나 비슷한 사업의 주식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과일이 크기보다 맛이 있어야 잘 팔리듯 작은 집과 땅이라도 미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효자보다 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작물, 직업, 집, 땅, 주식, 채권, 사업에 투자하며 미래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는 또한 최대의 축복일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 13:44).

이미경 권사

:: 신앙논객 ::

꾸준함이 능력이다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기도원 하계산상집회까지 뜨거운 태양만큼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한여름 일정들이 모두 끝났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한숨 돌릴 법도 한데, 어느새 우리 교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놓고 40일 작정기도를 진행 중이다. 밤에 기도처에 가면 수련회를 한창 준비할 때만큼이나 많은 청년들과 주의 종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으로 하여금 이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하게 하신 것은 물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사 지난여름 일정들을 통해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 말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단은 원 적이 없다.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열린 부흥 집회, 교회와 기도원 호텔 건축, 천 배 부흥을 기치로 내건 해외선교, 이번까지 10차에 걸쳐서 연이은 기도성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 끊임없이 우리 교단에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한 가지 일이 끝났을 때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 믿음과 지혜가 성장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이다.

탁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지속시키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더욱 대단한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몇 시간씩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단에서는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안수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성도들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맞아주는 일을 35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하셨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날마다 변화(變化)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셨지, 고인 물처럼 변질(變質)되지는 않으셨다. 그런 목사님의 꾸준함이라는 강점은 곧 우리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강점이 되고 있다.

신혁주 전도사

좋은 집에 살고 싶지요?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창자에서 실을 뽑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며, 까치는 벼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진답니다. 날짐승과 곤충도 길어야 몇 달 살 집을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짓습니다.

우리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집입니다. 그 집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날짐승들도 그렇게 힘들게 집을 짓는데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현금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가지만, 천국에서의 내 집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 하니까요. 어떤 재료로 짓느냐, 얼마나

나 넓고 높게 짓느냐, 얼마나 요지에 짓느냐, 이걸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을 갖는 것이 모두의 소원입니다. 큰 집에 잘 갖춰놓고 살고 싶지요. 그래서 안 먹고, 안 놀고, 안 자고 일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꿀팁을 드리자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즉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보너스로 떨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일에 손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당신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집, 대충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좋게 지으시겠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마16:27).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덮어놓고 믿지 말자

새로 입교한 한 성도가 있다. 아직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설교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뭔가 와 닿는 것이 있단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이런 마음을 인위적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단순히 좋기만 한 것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 맹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신자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동기로 믿기 시작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목적지와 신앙내용으로 집중해야 하기에 신앙의 길잡이 교육이 필요하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 내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저 군중의 일원으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내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종의 신분이 될 수도 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과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잠시 멈춰 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중들과 제자들의 의중을 점검하셨다(마16:13~17). 군중들은 더러는 예수를 공의 심판자 세례요한

으로, 불의 기적의 마술사 엘리야로, 민족 해방을 위한 민족운동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 제각각 여기고 있었다.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섬김을 낳는다는 예시다. 단순한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눈여겨보신다(삼상16:7). 그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정확히 고백했고 칭찬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 정확한 신앙 내용인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믿는 것이다(롬10:9, 히11:6).

우리는 삶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숨을 고르며, 각자 신앙의 좌표를 점검하길 원하신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내 입맛에 따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송직화 목사

좋은 습관이 이끄는 삶

8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에배는 2014년 도 청소년연합수련회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습관이 네 운명을 좌우한다’는 주제로 이초석 목사님께서 강연하셨지요. 영상이 끝난 후 이시대 목사님께서 첨언 하시며, 오늘 집에 가서 노트를 펼치고 자신이 가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리고 갖고 싶은 습관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보셨나요? 저는 적어 보았습니다.

저의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설교 말씀을 바로 실천하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제가 일기를 쓰게 된 계기도 20여 년 전 목사님께서 일기를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는 것,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저의 좋은 습관입니다. 당장에 생각하는 좋은 습관은 12가지더라고요.

나쁜 습관은 13가지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좋아하지만 설거지는 싫어해서 저녁식사 후 설거지를 항상 미룹니다. 며칠이 지나면 싱크대에 수북이 그릇이 쌓이지요. 또 건강에 나쁜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적다보니 시간을 들여 고칠 습관과 금세 고칠 수 있는 습관이 보이더군요. 일주일 정도 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된 영어 단어 공부를 다시 습관화하기 위해 오늘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습관 속에는 제가 살아온 삶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습관 중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였습니다. 5년 전부터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생겼고, 가계

부를 쓰면서 좀 더 계획적이고 검소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아침 수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늦잠 자는 습관이 고쳐져 몇 년째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녁을 사먹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야 할 습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 삶에 더 나아질 게 많다는 거겠지요. 런던 대학의 제인워들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오늘 적었던 습관 노트를 펼쳐봤을 때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고쳐지고, 좋은 습관을 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습관을 적어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명문가의 집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주인이 돌아가셔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천국에는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신사가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

십니까?” 집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무슨 일이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행을 갈 때 에나 집안에서 파티를 열 때에 몇 날 며칠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생전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영생에 관련된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자

동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From Internet ::

당신에게 보배는?

중국 송나라 때에 지방의 한 벼슬아치가 보석 감정인을 찾아가 감정을 받았다. 한참 동안 옥을 자세히 살피던 감정인은 “이 옥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입니다.”라고 답했다.

사실 그가 옥을 감정한 이유는 송나라 재상 자한에게 청탁을 할 때 바칠 생각이었다. 다음날 그는 그 옥을 가지고 자한을 찾아가 말했다.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옥입니다. 제가 보배로 여기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보관해왔으나 이제 는 자한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소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

녔던 자한은 이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옥을 보배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있소. 내가 이 옥을 받으면 우리 둘 다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다시 가지고 가시오.”

당신의 보배는 무엇인가?

예수중심편집실

:: 영생에 이르는 길 ::

예수님 같은 어머니의 사랑

지난달 간밤에 어머니께서 두드러기가 심해 응급실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두드러기가 나기에 급한 대로 약을 드리고 기다렸는데 새벽에 더 심하게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새벽 2시 즈음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수액을 맞고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히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짜증이 나거나 피곤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른 나으셔야 하는데 팬찮으신지 걱정하면서 스스로 철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침대

에서조차 어머니께서는 밤에 잠 못 자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집에 먼저 가있으면 택시를 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팬찮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회복하시면 바로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기다리면서, 팬찮으신 가운데서도 자식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 큰 사랑이 울컥 느껴져 먹먹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새벽에 제가 갑자기 아플 때 어머니께서는 낮에 일하시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부리나케 달려가셨습니다. 곁에서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면서 걱정하셨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난밤 곁에서 간호하며 그 은혜를 눈곱만큼이나마 갚을 수 있겠다 싶었던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의 사랑을 갚으려 할

때마다 부모님은 늘 더 많이 쏟아 부어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려야 갚을 수도 없다는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최근 어머니께서 몇 년간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매우 건강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너희가 힘들지 않아.’ 하시며 열심히 운동하시는 어머니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할 말을 잊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찌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대화 성도

일단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Start Now, Get Perfect Later). 립 무어의 ‘결단’이란 책 영문 제목이다.

완벽히 준비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주저하곤 하는데, 바로 성공하기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어떠한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 그러나 완벽한 준비를 마친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끝까지 이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결국 완벽히 준비하려고 노력만 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너무 완벽히 준비하려고 오랜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일단 결단해서 바로 시작하고 그 일에 부딪히며 점차 완벽해지라고 말이다.

개인적으로도 완벽히 준비해보고자 노력하고 애쓰던 일이 있었고, 언제 스타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완벽히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끝이 없는 일이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다가오는 생각은 ‘아직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었고, 결국 결정을 못 내리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내 속사람이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결단을 내리고 그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렵고 힘들더라도 차차 나아지고 근력이 붙어가며 더 성장하고 완벽해지리라 생각한다.

하고 싶었던 일, 꼭 이뤄내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일 등등.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도전해서 부딪히며 점차 완벽해지려 애써보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사장의 첫 발걸음이 요단강 물가에 잡기자 비로소 그때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끊기고 마른 땅으로 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수3:15).

장명훈 집사

